

스와 신사 본전 무나후다(상량패) 1장

스와 신사(諏訪神社)는 오기소(小木曽) 지적(地籍) 하바시타의 사총(社叢, 신사 경내의 숲)에 자리하고 있다.

스와다이묘진(諏訪大明神), 구마노다이곤겐(熊野大權現), 하치만다이진(八幡大神)을 제신(祭神)으로 모시고 있으며, 그 외 경내 사당으로 호소샤(疱瘡社), 하치만구(八幡宮)가 있다.

본전은 산겐샤나가레즈쿠리(三間社流造) 양식이며, 지붕은 고케라부키(노송나무 널지붕)이다.

현존하는 무나후다(상량패)에 '조쿄 2년(1685) 우시마루 젠에몬(牛丸善右衛門)'이라 적혀 있는데, 이것으로 기소무라에서 가장 오래된 신사 건축물이라 추측할 수 있다.

오기소구(小木曽區)의 산토신(産土神)으로 추앙받고 있다.

또, 구전에 의하면 부락 사람들이 다음 날의 모내기를 위해 모종을 작은 연못에 준비해 두었더니 다음날 아침에 그 모종 다발에 헤이소쿠(弊束)라는 제구가 꽂혀 있었다고 한다.

이를 본 농부는 신의 강림이라고 기뻐했다.

이 길조를 풍작의 신으로 여겨 하치만샤(八幡社)와 함께 합사해, 이름을 도리나에다이묘진(取苗大明神)으로 하고, 제례일을 5월 15일로 정했다고 하는데, 그 연대는 명확하지 않다.

스와 신사(諏訪神社)로 개명한 연대 등은 모르나, 호레키 7년(1757년) 길소지략(吉蘇志略, 오기소)에는 다음과 같은 기술이 있다.

신사(神祠) [스와다이묘진시(諏訪大明神祠)] [야하타시(八幡祠)] 함께  
야부하라 호코라미야(藪原祠宮) 오쿠야 씨(奥谷氏)의 제사를 모신다

제례는 9월 14일, 15일 양일에 행해졌으나, 현재는 9월 둘째 주 일요일에 행해지고 있다.

'기소무라 문화재 탐방'

(1986.3.25 발행 기소무라 교육위원회)에서